

한국 SGI의 공공윤리 교육연구

金 容 煥

충북대학교

〈요 약〉

‘불온한 왜색종교’로 이 땅에 들어온 창가학회는 오늘날의 한국 SGI로 성장하였다. 독자적인 재가신도중심 종교단체로서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불교승려 집단과 결별하였다. 한국 SGI의 종교교육은 종교윤리의 실천교육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일념삼천의 우주론과 입정안국의 공공실천에서 사심(私心)을 공심(公心)으로 전환하는 십계호구의 법리를 제시한다. 또한 삼대비법의 존재론과 자행화타의 공공실천에서 공사공매(公私共媒)가 가능한 제목창제 법리를 나타낸다. 그리고 일생성불의 인간론과 광선유포의 공공행복의 실천에서 이체동심(異體同心)의 법리를 나타냈다. 언급한 세 가지의 법리는 『법화경』에 그 연원을 둔다. 따라서 한국 SGI 교학은 일본의 ‘니치렌 불법(日蓮 佛法)’에 근거하되, 『법화경』의 대승불교의 천태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공공윤리 실천을 지향한다. 이는 붓다가 중생에게 성불종자를 내리는 ‘하종(下種)’의 성격으로 하화중생을 목적으로 ‘하종익(下種益)’의 방안을 다양하게 구사하였다.

먼저 일념삼천의 우주론과 입정안국의 공공윤리 실천에서 사(私)를 살려서 공(公)의 불계를 지향함으로 ‘활사개공’의 공공윤리 가치를 실천한다. 개체생명을 살려서 우주생명과 화연관통하는 입정안국의 실천에서 평화를 구현하고 생명화합을 선도한다. 또한 한국 SGI는 삼대비법 존재론과 자행화타의 공공실천에서 공과 사를 이어주고 매개하는 공사공매의 공공윤리 가치를 실천한다. 특히 삼대비법의 존재론을 통해 말법중생 전면구제의 비요(秘要)를 전개함으로 본문의 본존(本尊)·제목(題目)·계단(戒壇)은 삼원구조의 양상을 나타낸다. 『법화경』을 토대로 만인성불 목표의 ‘남묘호련게교(南無妙法蓮華經)’를 봉창함으로 우주생명과 개체생명을 이어주고 매개하여 성상원융(性相圓融)을 목표로 한다. 일생성불의 인간론과 광선유포의 공공실천에서 행복공창(幸福共創)의 공공윤리 가치를 실천한다. 한국 SGI는 ‘우주신인론 영성’에 입각하여 인권개선과 세계평화에 앞장서며 개인적 기복보다 사회적 공공성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핵심주제어: 한국 SGI, 십계호구, 제목창제, 이체동심, 공공윤리, 우주신인론 영성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종교윤리의 교육관점에서 한국 SGI(Korean Soka Gakkai International, 한국 국제참가학회)의 공공윤리 교육을 다루고자 한다. 일찍이 윌슨(J. Wilson)은 종교교육은 감정적 정서와 함께 도덕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¹⁾ 또한 브래턴(Oddrun M. H. Braten)은 종교교육의 방법론으로 사회적·제도적·교훈적·경험적 방법의 네 가지 수준을 제시하였다.²⁾ 먼저 사회적 수준에서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서 공공성을 중시하며, 제도적 수준에서 학교수준에 맞추어 교육의 특수성을 살린다. 또한 교훈적 수준에서 교육자의 관점을 중시하며, 경험적 수준에서 종교교육을 통한 피교육자의 내면 변화에 역점을 둔다.

종교윤리 교육관점에서 한국 SGI의 종교윤리 교육은 사회적 공공성과 함께 내면의 감정적 정서를 고려한다. 유기체의 시각으로 레이몽 파니카(R. Panikkar)는 ‘우주신인론 형성’과 연계하여 세 지평을 제시하였다. 레이몽 파니카의 ‘우주신인론 형성’은 ‘우주론 차원’, ‘존재론 차원’, ‘인간론 차원’의 세 지평으로, 신앙의 궁극실재를 그 실천적 역량과 상관연동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전망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체생명과 우주생명을 이어주고 매개한다.³⁾ 한국 SGI는 상호연관의 우주론의 전망 그리고 성불을 지향하는 존재론의 전망 그리고 믿음을 전하는 사제관계를 학습하여 사회적 공공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크리스토퍼 고원은 ‘불교의 공공복지’에 관련하여, 일상충족과 반야지혜를 이어주는 통합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⁴⁾ 이는 승속(僧俗) 일체의 관점에서 재가신도중심의 종교교육을 전개하는 한국 SGI 상황에 부합한다. 박승길은 “한국의 SGI의 사회적 공공성을 통해 국내에서 독자적 재가신도중심의 종교단체로서는 성공한 거의 유일한 사례”로 평가하였다.⁵⁾ 실제로 공공윤리에서는 인류의 행복구현에 대한 공공성 맥락에서 개인의 사복(私福), 집단전체의 공복(公福), 개인과 집단 사이를 이어주고 매개하는 행복공창(幸福共創)을 논하고, 이에 따른 공공실천으로 공사(公私) 관계의 협력을 중시한다. “공공윤리 교육에서는 사익과 공익이 상관연동을 이루는 ‘상반상생(相反相生)’의 공공작용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모색하고 있다.”⁶⁾

1) J. Wilson, *Education in Religion and the Emotion*(London: Heineman, 1971), p. 261.

2) Oddrun M. H. Braten, *A comparative of religious education in state schools in England and Norway* (Coventry: University of Warwick, 2009), pp.25-6.

3) Raimon Panikkar, *The Cosmotheandric Experience: Emerging Religious Consciousness* (NY: Oeibis Books, 1993), p.137. 레이몽 파니카는 ‘다원실재론’의 관점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내세웠다.

4) Christopher W. Gowans, *Buddhist Moral Philosophy*(NY: Routledge, 2015), pp.118-9.

5) 박승길, 『현대한국사회와 SGI』(대구: 태일사, 2008), p.351.

6) 김용환, 「공공철학 체계와 실천윤리」 『근대한국과 일본의 공공성 1』(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한국 SGI는 삼업(三業)을 삼밀(三密)로 전환하고자 ‘니치렌 불법(日蓮 佛法)’에 근거한다. 『법화경』을 계승하고 중생에 성불종자를 뿌려 중생을 돕는 ‘하종익(下種益)’을 중시한다.⁷⁾ 한국 SGI의 공공윤리 토대가 되는 니치렌 불법에서는 생명존중·생명치유·생명살림의 교육을 중시한다. 먼저 생명존중의 교육은 일념삼천의 우주론과 연동하는 ‘십계호구 법리’로 개체생명을 살려 우주생명과 활연관통하게 함으로, ‘활사개공(活私開公)’의 의무윤리를 구현한다. 또한 생명치유의 교육은 삼대비법의 존재론과 연동하는 ‘제목창제 법리’로 우주생명의 공(公)과 개체생명의 사(私)를 존재론으로 이어주고 매개하고 살리는 ‘공사공매(公私共媒)’의 소통윤리를 구현한다. 그리고 생명살림의 교육은 일생성불의 인간론과 연동하는 ‘이체동심 법리’로 민중과 더불어 행복한 ‘행복공창’ 구현의 목적윤리를 표방한다. 이처럼 한국 SGI는 활사개공과 공사공매 그리고 행복공창의 공공윤리 실천과제를 신앙목표로 설정하여 종교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 SGI는 우주신인론 영성의 열개를 통해 우주의 불계와 보살계 그리고 인간계가 각각의 독자성을 유지하지만,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양쪽을 적절하게 이어주고 매개하여 유기체로 작동하도록 실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⁸⁾ 이러한 전망은 상호 호혜의 상관연동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본래성품을 깨달아 보살인격의 실천으로 응답한다. 한국 SGI는 대승불교의 자비사상에 입각하여 자연보호, 환경보호를 추진하며 종교교육의 흐름에 앞장서려고 노력한다. 또한 타종교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며 행복세상 구현을 위한 종교교육에 관심을 보여준다.⁹⁾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정신력을 구비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¹⁰⁾ 민중의 행복을 위한 가치창조 교육에 관심을 두는 한국 SGI는 종교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양성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

오늘날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는 투쟁과 갈등의 대립에 직면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다각도로 요구된다. 특히 핵무기의 존재로 말미암아 지구의 종말이 가시화되며, ‘이슬람 무장세력(IS)’은 신의 이름으로 생명을 유린하고 학살하는 일에 광분한다. 배타적 신념체제로 말미암아 인류의 장래는 도처에서 위협을 받기에 교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절대적 진리 주장을 교육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¹¹⁾ 한국 SGI는 생명존엄과 세계평화의 기치(旗幟)를 내걸고 민중불교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공공윤리 실천을 모색하고 있기에 한국 SGI의 공공윤리 교육탐구가 요청된다. 공공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덕행을 과시하지 않고 자기성찰을 꾸준히 요구한다.¹²⁾ 메타진리로서 공공윤리 실천방

2015), p.139.

7) 창가학회교학부편, 『교학의 기초』(서울: 화광신문사, 2011), p.54.

8) 김태창, 「한사상·한철학과 공공윤리」 『윤리교육연구』26집(청주: 한국윤리교육학회, 2011), p.173.

9) 한국SGI, 2012·2013. 『한국SGI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서울: 한국 SGI), p.66.

10)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김은희 옮김, 『행복』(서울: 지혜의 나무, 2011), p.147.

11) Abe Masao, 변선환 역, 『선과 현대신학』(서울: 대원정사 1996), pp.463-464.

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SGI의 교법에 나타난 다양한 응답능력, 교화방식에 따른 대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 SGI는 반전반핵 운동을 비롯하여 난민구호, 생태운동, 세계문화유산 유적 조사 및 복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한국 SGI는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구를 잇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1975년 1월 국제창가 학회의 결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국의 포교활동에 들어갔다. 이웃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 SGI는 사회적 봉사활동을 종교교육 차원에서 실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SGI는 그동안 한국의 문화풍토에서 타자적인 비판에 직면하면서, ‘왜색집단’, ‘사이비 불교집단’, ‘정치집단’ 그리고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사교(邪教)’라는 혹평에 심각하게 노출되었다.¹³⁾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종교적 가치창조에 근거한 종교교육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국 SGI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 지표를 구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양상을 나타냈다.¹⁴⁾

SGI의 역사적인 설립은 1930년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三常郎, 1871-1944)가 『창가 교육학체계』를 발간하고 「창가교육학회」를 창설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천태사상에 연원을 두고 있는 일련정종이 뿌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SGI를 일본 군국주의 산물로 간주하고, 1930년 대 나타난 신종교로 파악하면서 왜색종교로서 한국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든 원흉으로 오해하였다. 실제로 SGI 연원이 되는 일련정종은 고려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창시한 이후 일본 천태사상과 연계하여 13세기로 소급이 된다. 일련정종의 평신도들은 20세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염려하면서 단결하여 군국주의 편향의 일련정종 승려집단에 반기를 들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일련정종과 결별하면서 창가학회는 20세기 초반 결성되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듯이, 마키구치 쓰네사부로도 20세기 재자신도 중심의 종교개혁을 이룩하였다. 그 이후 1946년, 도다 조세이(戸田城聖, 1900-1958)가 「창가학회」이름으로 재건운동을 전개함으로 창가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1958년, 도다 조세이가 사망한 후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1928-) 제3대 회장이 오늘날의 SGI를 이끌어 간다. 그는 한국에 대해 보은(報恩)의 나라로서 숭경의 마음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일련정종의 교화방식으로 인간영혼이 식민지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창가학회 가치창조 방식으로 영혼의 ‘탈식민지화’를 위한 종교교육에 관심을 나타냈다. 1975년,

12) Annas, J., *Intelligent Virtue*(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102.

13) 연안준, 「제3문명을 파는 일본판 사교」 『사상계』, 1964년 3월호 참조.

14) 조현범, 「한국 사회와 종교적 타자성의 인식논리-한국 SGI의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11(서울: 종교문화비평학회, 2007), pp.189-203. 한국 SGI를 ‘왜색종교론’, ‘비불교론’, ‘비종교론’으로 폄하하는 사례를 모아 정리했지만, 2000년 이후 초고속망의 설치에 따른 배타적 타자 인식의 감소, 현대불교 혁신운동의 오해, 2000년 4월 문화관광부에 한국 SGI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사실 등을 감안하여 한국 SGI는 한국의 사회와 종교계에 주요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51개국 학회대표가 뭉쳐 모여 SGI를 결집함으로 창가학회가 결성되었다. 1976년 5월, 한국에서 ‘일련정종불교회’ 모태로 2000년 한국 SGI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44개 방면, 136개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SGI 회원 수는 150여 만으로 김인수 한국 SGI 이사가 총괄하며, 192개국 SGI 회원국에 1200여 만으로 생명·민중·현대 불교에 앞장섰다.¹⁵⁾

본 연구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해석학의 방법을 병행하였다.¹⁶⁾ 문헌연구가 교화방식을 분석하기 위함이라면, 해석학적 방법은 가치창조에 의한 종교교육 가치를 규명함이다. 이를 위하여 파니카(R. Panikkar)의 ‘우주신인론 영성’과 아쉬튼(E. Ashton)의 ‘종교교육¹⁷⁾’의 관점을 함께 살려서 한국 SGI 교화방식과 함께 인간영성 회복과 종교교육 가치를 함께 조망함으로써 한국 SGI의 공공윤리 교육전망을 바르게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주론, 존재론, 인간론을 유기체로 엮는 담론으로 한국 SGI 교화방식보다 생명존중과 인격가치를 살릴 수 있는 종교교육 전망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¹⁸⁾ 이에 공공윤리 실천에 근거한 종교교육 담론을 전개한다.

II. 일념삼천의 우주론과 입정안국의 공공실천

1. 일념삼천(一念三千)의 우주론

1923년의 관동대지진은 위기의 일본경제를 더욱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 니치렌 불법이 개인의 성불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선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보았기에, 마키구치 쓰네사부로(마키구치 쓰네사부로)는 니치렌의 『어서』에서 가르치는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교육론을 정리하여 『창가교육체계』를 출판하였다. 이 저서에서 마키구치는 국민형성이라는 정치사회적 담론으로

15) 박승길, 『현대한국사회와 SGI』(서울: 도서출판 태일, 2008), pp.352-353.

16) 박승길·조승윤, 「한국 사회에서 타자로서의 타자 멘탈리티의 변화」 『사회와 역사』67(서울: 한국 사회학회, 2005), pp.326-7. 해방이후 1960년대까지는 타자로서의 일본에 대해 금기대상,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는 동경과 보복의 이중심리,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다양한 수용, 1990년대에서 20세기 말까지는 선택적 친화와 공존에 관한 책임윤리로 드러난다. 이에 필자는 21세기를 세계시민성 시대의 진입으로 해석하기에 사회적 공공성의 확산에 초점을 두고 한국 SGI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왜색범주를 탈피하여 민중불교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17) Elizabeth Ashton, *Religious Education in the early years* (NY: Routledge, 2000), p.16. 아쉬튼은 종교교육의 가치는 종교교화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율성을 회복하도록 ‘심미적 개방성, 환경적 통합성, 자아의 환희성, 타인과 공평성, 진리의 민감성’ 가치를 특정종교의 교화방식에서 벗어나 보편적 종교교육 가치로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생명활동과 연계된 종교교육 가치로 분석한다.

18) Panikkar, Raimond, *The Experience of God, Icons of Mystery*(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2006), pp.36-7. 레이몽 파니카는 종교적 신비와 체험을 이성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우주신인론 영성’의 전망으로 해석하면, 이성적 초월의 영성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터 민중구원이라는 종교교육 담론으로 전환하였다. 창가교육은 니치렌이 보증한 법화경으로 귀의하여 널리 행복가치를 만민에게 열어주는 ‘일념삼천(一念三千)’의 우주론을 전개하였다. 행복은 생명의 충실감으로 가치창조에서 만민이 행복을 느낀다는 심정에서이다. 선한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기에, 한국 SGI는 ‘일념삼천’의 우주론을 중시한다. ‘일념삼천’은 ‘한 생각’에 삼천제법의 실상을 갖추고 있음이다. ‘십법계(十法界)’는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천상의 ‘육범부계(六凡夫界)’와 성문·연각·보살·불(佛)의 ‘사성계(四聖界)’의 총합을 일컫는다.

개체생명이 우주생명과 연동되고 중국적으로 부처생명이기에 평범함 사람의 미혹에도 삼천의 법계, 곧 우주생명의 생각들이 갖추어져 있다. 중생은 불성의 실상을 구축한다. 십법계를 호구로 갖추기에 백법계가 되며, 백법계가 십여시(十如是)를 갖추기에 천여시(千如是)를 이룬다. ‘천여시’가 삼세간(三世間 : 五陰世間 · 衆生世間 · 國土世間)을 갖추고 있기에 삼천세계의 우주가 성립된다. 결국 한 마음에 우주만유가 갖추어져 있어, ‘일념삼천(一念三千)’은 삼천제법과 상관으로 연동한다.

‘십여시’는 『법화경』 「방편품」에 나타나지만 ‘십여시’는 니치렌의 어서에도 나온다.¹⁹⁾ 여시상(如是相)으로부터 여시보(如是報)에 이르기까지 본체는 공(空)하지만 인연생(因緣生)의 가유(假有)로 나타난다. 공(空)·가(假)의 상즉(相卽)으로 중도로서 제법실상을 이룬다. 법화경의 수기는 붓다의 생명을 자기 생명에 새겨 붓다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다.²⁰⁾ 중생의 ‘이구일념삼천(理具一念三千)’과 제불(諸佛)의 ‘사증일념삼천(事證一念三千)’이 합쳐진 ‘불종자(佛種子)’로서 삼신불의 모습에 해당하는 법·보·응(法·報·應)을 구축한다. 이 원리에 근거하여 공공행복을 펼치는 ‘대선실천(大善實踐)’ 체계를 한국 SGI의 종교교육 실천과제로 삼았다.

『묘법연화경』은 중생을 성불케 하는 경전으로 법왕, 붓다마저도 이 경전을 지닌 사람을 내치지 못한다.²¹⁾ ‘남묘호렌계교(南無妙法蓮華經)’ 일자일구(一字一句)가 성불종자이다. 상행보살(上行菩薩), 무변행보살(無邊行菩薩), 정행보살(淨行菩薩), 안립행보살(安立行菩薩) 등에게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글자를 전하여 방법자(謗法者)·일천제(一闡提)·백라병(白癩病) 무리들의 양약으로 삼으라고 당부한 붓다 금언(金言)에 연원을 둔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한 생각이 십법계·백법계, 천여시, 삼천제법(三千諸法)을 이루게 된다. 한 생각

19) 십여시는 ‘如是相’의 현상, ‘如是性’의 본바탕, ‘如是體’의 몸, ‘如是力’의 힘, ‘如是作’의 작용, ‘如是因’의 원인, ‘如是緣’은 연, ‘如是果’는 과, ‘如是報’는 報를 말하지만, ‘십여시사’는 법화경이 나 자신의 체(體)를 불러 나타내시는 부처의 말씀이시므로. ‘이 몸 그대로 금생 중에 본각의 여래를 나타내서 즉신성불(卽身成佛)이라고 일컬어지느니라’고 한다. 니치렌, 『니치렌 대성인 어서전집 상·하』(서울: 화광신문사, 2007), p.411 참조.

20) 이케다 다이사쿠, 『법화경의 지혜 2』(서울: 화광신문사, 2000), p.112.

21) 법화경에서 십계인과의 호구를 설함으로 자타일시 성불이 가능해지는 생명존중의 법리를 나타낸다. 『어서』에서도 ‘십여시’를 묘법연화경으로 풀이함으로 대승평등법의 시작임을 알리면서 생사(生死)가 바로 열반(涅槃)이라고 밝혔다(니치렌, 앞의 책, p.414).

이 삼천제법을 갖추고 있기에, 마음과 부처 그리고 중생은 실제로 일여(一如)이다. 붓다의 지혜를 계발하고, 진실로 자비롭게 생명에 충실하면 중생행복을 획득하는 근본이다.²²⁾ 붓다가 입멸한 뒤 법화경을 지닌 사람을 여래와 같이 공경한다. 한순간이라도 일체 제법이 한 생각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부각시키고 민중안운을 위해 입정안국의 실천으로 나아갔다. 천태사상에 뿌리를 둔 우주론에 입각하여 13세기의 일본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한 설계도가 ‘입정안국’에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일본사회는 백성을 위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공공성의 여명을 확보하였다.

2. 입정안국(立正安國)의 공공실천

니치렌이 입종선언을 한 것은 1253년 4월 28일 이었다. 이날부터 민중구제의 법전이 시작되었고, 7년 후에 저술한 「입정안국론」에서의 두 예언이 일본의 내란과 외침으로 이어졌다. 입정(立正)은 불교의 정법을 세우는 의미이고 안국(安國)은 민중의 안온(安穩)에 역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 당시 근대 일본의 국가주의 형태에 대한 도전으로 입정안국은 새로운 공공윤리의 실천체제였다. ‘입정’은 법화경의 선에 토대를 두고 개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당시 불법의 종파들은 민중의 행복은 외면하고 권력에 아부하여 권력의 안정에 온 힘을 쏟는 상황이었다. 불법이 왕법을 대신하여 ‘공(公)’의 가치는 살렸지만, 공공윤리 실천방향을 상실하였기에, 니치렌이 「입정안국론」을 작성하여 사이묘사(最明寺) 입도전(入道殿)에게 제출했다.²³⁾

‘안국’은 민중안온과 민중평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계층의 안위에 대항하여 새롭게 마련한 공공윤리 실천방향이다. 그의 「입정안국론」에서는 ‘자계반역난’과 ‘타국침핍난’을 적중시켰다.²⁴⁾ 당시 민중은 천변(天變)과 기근(飢饉)에 시달리었다. 1257년 8월 가마쿠라 대지진이 있었고 다음 해는 태풍과 홍수, 그 다음 해는 전국적 기근과 역병이 일어났다. 이 상황에도 ‘겐초코코쿠젠사(建長興國禪寺)와 같은 큰 사찰에서는 천황의 만수무강, 장군가와 중신들의 천하태평을 기원하고, 호조 일문의 명복을 기원하는 등 극소수자의 권력자를 위한 기원을 할 뿐 대다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은 안중에 없었다.

니치렌은 자계반역과 타국침범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불계(佛界)’로 민중을 인도하는 공공실천 방향을 설정하고, 인간생명에 내재하는 불성개발과 불계용현으로 평화를 수립하는 공공의식에서 염불에 의한 극락정도 왕생의 종교의례를 비판하고 국가권력의 마성과 탐·진·치 삼독에 물든 마음을 정화하고자 인간혁명에 의한 세계평화 수립에 헌신하였다. 따라서 그 정신은 세계시민을 육성하고 배출하는 요람이 되어 21세기를 개척하는 도덕기풍

22) 이케다 다이사쿠, 『개목초 강의』(서울: 화광신문사, 2007), p.181.

23) 이케다 다이사쿠, 『어서의 세계 1』(서울: 화광신문사, 2007), p.133, 『어서』, p.371.

24) 위의 책, p.117.

의 핵심이 되었다.²⁵⁾ 입정안국의 공공실천은 ‘이체동심(異體同心)’으로 단결하여 민중안온을 실현하였다.

‘이체동심’의 ‘이체(異體)’는 각자의 개성과 특질 그리고 처지 등이 다른 것을 지칭하며, ‘동심(同心)’은 목민중안온의 공공가치를 공유함이다. 공공가치를 표방하는 스승과 그 뜻을 따르는 제자는 사제관계를 형성하여, ‘사제불이 신심’으로 ‘동심원(同心圓)’을 이룬다. 스승과 함께 공공가치에 입각하여 일상에서 분투하고, 공공가치 실현에 매진하여 ‘이체동심’을 이룬다. 한마음으로 일치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살린다. 이 ‘묘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기에, ‘활사(活私)’로서 ‘개공(開公)’하는 공공윤리의 실천방안이다.

‘이체동심’은 ‘활사개공’의 공공실천이기에 새 응집력을 발휘한다. 이 응집력으로 ‘타자’와 공존하여 야만과 결별하는 ‘문명’의 절대요건을 이룬다.²⁶⁾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성을 나타냄으로 상호 호혜적으로 존중하면, 사회는 공공성을 확보하여 ‘이체동심’을 이룬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집을 벗어나, 무한한 우주생명 가능성과 동시에 개성을 발휘함으로써 ‘이체동심’은 ‘활사개공’의 공공윤리를 실천하는 근간이다. 이와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을 악과 불행으로 속박하는 무명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공공세계를 열기 위해 실천을 도모하기에 전체적으로 생명존중의 평화실천에 동참할 수 있었다.

‘활사(活私)’로서 ‘개공(開公)’하는 공공실천이기에 한국 SGI는 생명존중 불교에 진입하였다. 또한 ‘이체동심’은 획일적 단결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무명으로부터 해방을 통해 불성의 지혜를 발휘하고 평화실천에 단결력을 나타내는 활로를 스스로 뚫는다. 역사적으로 살피면, 은(殷)의 주왕(紂王)은 칠십만 ‘기(驕)’였지만 ‘동체이심(同體異心)’으로 싸움에 져고, 주(周)의 무왕(武王)은 팔백 ‘인(人)’이었지만 ‘이체동심(異體同心)’으로 승리했다.²⁷⁾ 이 정신은 개체의 존엄을 인정하는 활사의 정신이다. 입정안국의 ‘사제불이(師弟不二)’ 정신과 ‘이체동심’은 수레바퀴처럼 연동한다. 입정안국으로 사제가 한마음으로 생명존중의 ‘사제불이’ 정신을 발휘한다. 이념이나 화폐의 보편성은 ‘외재적 보편’인 데 반하여, ‘사제불이’의 원리는 구체성의 세계에 뿌리를 내려 그 내면에서 찾는 ‘내재적 보편’의 종교교육 원리를 형성하였다.²⁸⁾

25) 이케다 다이사쿠, 『인간혁명의 세기로』(서울: 두산인쇄, 1999), p.191.

26) 이케다 다이사쿠, 『새로운 가치창조의 시대』(서울: 화광신문사, 2010), p.38.

27) 이케다 다이사쿠, 『어서의 세계 1』(서울: 화광신문사, 2007), p.220.

28) 이케다 다이사쿠, 『인도적 경쟁을 위한 새로운 조류』(서울: 화광신문사, 2009), p.34. ‘내재적 보편’의 접근방법은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초대회장이 『인생지리학』에서 제시한 것으로, 지역적 향토성에 철저하게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을 빼고는 어떤 지평이나 전망도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Ⅲ. 삼대비법의 존재론과 자행화타의 공공실천

1. 삼대비법(三大秘法)의 존재론

교육은 인간의 자유로운 개성을 최대한 발현시켜주는 작용을 중시한다. 종교교육은 인성에 작용하는 종교적 영성을 최대한 일깨워주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종교적 교화(indoctrination)와 구분된다. 주입식 교화는 교육과 달리 자유로운 지성의 발달을 저해하며 독선적 편견을 심어주기에 비교육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종립학교에서 시행하는 종교교육은 주입식 교화의 위험을 내포한다.²⁹⁾ 학생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이 없는 상황에서 천편일률적인 종교교육을 종교의 교화방식으로 진행하면 위험 소지를 낳기도 한다.

붓다의 가르침에는 불·법·승 삼보(三寶)를 강조하며 교주와 교리 그리고 교단을 함께 중시한다. 삼보는 공공윤리 실천대상으로 ‘화용삼보(化用三寶)’와 ‘실덕삼보(實德三寶)’로 나뉜다.³⁰⁾ 먼저 ‘화용삼보’는 붓다의 대비가 법계에 두루 펼쳐져 팔상성도의 화용불보, 교화 받는 중생근기에 상응하여 교화로써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화용법보, 교법대로 교화해서 성문·연각·보살로 변화시키는 화용승보로 나뉜다. 반면에 ‘실덕삼보’는 법신이 상주하는 실덕불보와 법성을 발휘하는 실덕법보, 그리고 승행(僧行)을 담보하는 실덕승보로 나뉜다. 공공윤리 실천에서 불교도는 삼보에 귀의하되 인격을 존중하는 종교교육을 시행하였다.

삼보성립은 붓다의 성도로부터 시작되어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정(絕對寂靜)으로서 열반을 구현하는 요체이다. 붓다는 쾌락과 금욕의 양극단을 배재하는 중도와 사제(四諦)·팔정도(八定道)·십이연기(十二緣起)의 법(法)을 설하였는데, 이것을 지칭하여 ‘법보’라고 말한다. 공공윤리 실천에 있어서도 붓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을 중시하고, 대화와 함께 문답식 교육방식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맹목적 믿음의 강요가 아니라 문제인식과 주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방법이라고 분류하였다.³¹⁾

신라고승, 원효(元曉)는 삼보를 객체로 보지 않고, ‘주체화(主體化)’의 산물로 간주하였다.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에서 ‘중생의 육근은 일심(一心)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스스로 근원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져 육진(六塵)을 일으켜 객진번뇌에 내몰린다 하였다.³²⁾ 이제 목숨을 다하여 번뇌의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그 본래원천인 일심으로

29) 최철윤, 「종교의 자유: 침해의 유형과 그 구제를 중심으로」 『일반법학』8, 2003, pp.135-7.

30) 윤허, 『불교사전』(서울: 동국역경원, 1995), 「三寶條」

31) 김용표, 『포스트모던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서울: 정우서적, 2010), p.224.

32) 김현준,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서울: 효림, 1998), p.54.

돌아가야 되기에 이를 ‘귀명(歸命)’이라 하며, 일심삼보 중심으로 일심수행을 불교의 종교 교육으로 삼았다.

반면에 한국 SGI는 불교의 삼보에 대응하는 삼대비법을 내세워 본문의 본존(本尊), 본문의 계단(戒壇), 본문의 제목(題目)을 교화내용으로 삼는다. 『법화경』의 성불론에 나타난 구원실성의 묘법, ‘남묘호렌게교(南無妙法蓮華經)’ 창제를 내세운다. ‘남묘호렌게교’에 대한 진지한 믿음을 관철하며 투쟁하는 실천자에게 니치렌 삼덕으로 탁세를 운택하게 변화시켜 인격함양을 꾀한다.³³⁾ 또한 이를 통해 중생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발고여락(拔苦與樂)’이 가능하다고 말한다.³⁴⁾ ‘남묘호렌게교’의 창제가 공공윤리 실천의 요체이지만 종교교육 차원에서 보편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한국 SGI에서는 ‘남묘호렌게교’ 창제가 성불의 본인(本因)으로서 발심과 결의를 통해 끊임없이 현실숙명을 전환시키는 실천방안이며, 현재의 슬픔이나 불행마저도 십게호구 법리에 따라 행복열매를 맺는 종자로 바라보는 적극적 생활태도로서 관념적 의문을 퇴치할 수 있었다.

한국 SGI는 다른 종교에서처럼 서방정도나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숙명전환을 이룰 수 있음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격은 지용보살이며 파사현정의 싸움을 현실적으로 전개하여 지용보살의 우두머리로서 상행보살, 니치렌을 닮아가는 가운데 영성개발 실천을 주문한다. 본문제목의 ‘남묘호렌게교’와 허공회의 영성 체험은 좋은 시민으로서 사회변영에 공헌한다. 이에 따라 신행단체로서 공공가치를 중시하는 종교교육 방법에 의해 단체성격을 일상생활의 가치창조 모태로 전환시키고 있다.³⁵⁾

본문본존으로 먼저 ‘법본존(法本尊)’이 있다. 이는 남묘호렌게교를 드러낸 만다라 본존을 말한다. ‘법본존’의 중앙은 묘법연화경, ‘좌 석가(左 釋迦)’ · ‘우 다보(右 多寶)’의 이불(二佛)을 안치한다. 또한 본문본존에는 ‘인본존(人本尊)’이 있으며, ‘인본존’은 니치렌 대성인으로, ‘구원원초 자수용보신여래’로서 묘법의 힘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 사용한 여래로서 일심의 귀의처가 된다. 다시 법본존과 인본존을 일체로 상정하여 ‘인법체일(人法體一)’을 이루는 ‘성상원융(性相圓融)’ 회통의 만다라 본존에 귀의하게 된다. 앞서 말한 일체삼보가 한국 SGI에서는 만다라 본존을 지향하는 삼대비법으로 나타나서 새로운 삼보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이다.

또한 본문계단은 귀의심으로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장소에서 무명을 타파하고 생명의 불계를 용현하는 공덕을 낳는다.³⁶⁾ ‘말법에 들어가면, 중생들의 병을 치유하는 약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교화한다. 말법시대의 병이 무거운 데 비하여 약이 가볍기 때문

33) 이케다 다이사쿠, 『開木抄 강의 하』(서울: 화광신문사, 2007), p.195.

34) 이케다 다이사쿠, 『어서의 세계 3』(서울: 화광신문사, 2005), p.22. 『대지도론』권27에 ‘대자(大慈)는 일체중생에게 낙(樂)을 베풀고, 대비(大悲)는 일체중생의 고(苦)를 제거한다.’고 쓰여 있다.

35) 박승길, 『현대한국사회와 SGI』(서울: 도서출판 태일, 2008), p.337.

36) 창가학회교학부편, 『교학의 기초』(서울: 화광신문사, 2011), p.65.

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 상행보살이 출현하여 ‘묘법연화경’의 오자(五子)를 ‘일염부제(一閻浮提)의 일체중생에게 수여(授與)한 것이 계기가 되었음이다.³⁷⁾ 본문제목으로 ‘신(信)’은 본문본존을 믿는 것이고, ‘행(行)’은 ‘남묘호렌계교(南無妙法蓮華經)’라고 부르는 ‘창제’이다.³⁸⁾ 이러한 창제방식은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창시하면서 아미타불을 염불한 정도 신앙과도 대비가 된다.

이에 따라 한국 SGI는 염불방식이 아니라 ‘본문제목 창제’ 형태로 천태사상을 새롭게 함으로써 법신과 반야 그리고 해탈의 삼덕을 하나로 관통시켜 일심의 ‘상적광토(常寂光土)’를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로 자리 잡았다. 이 신념은 영혼을 예측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여 가치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종교교육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깊은 신심(信心)으로 ‘남묘호렌계교’를 창제하는 방식에서 스스로 광명불성을 깨달아 자성청정을 발견하는 종교교육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격적 성찰을 중시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방식과 닮았지만, ‘본문제목’ 창제는 기복신앙을 탈피하여 더불어 행복한 자행화타의 공공윤리 실천으로 나아갔다. 삼대비법의 존재론에 근거하고 자존감을 살리면서 타인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공실천의 길이 자행화타로서, 다음에서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2. 자행화타(自行化他)의 공공실천

한국 SGI 교화방식으로는 ‘본문본존’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본문제목’은 니치렌이 수행한 ‘남묘호렌계교(南無妙法蓮華經)’ 창제로 나타난다. 십계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면서 생명기저를 부처의 생명과 일체가 되도록 장엄하게 함으로 경애신심으로 공공행복을 확립한다.³⁹⁾ 이를 통해 더불어 행복한 공공행복이 가능한 이치를 제목창제의 법리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 ‘채워주는 교육’이 아니라, 잠재적 소양으로서 영성을 계발시키는 ‘이끌어 주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자행화타의 교육방식은 더불어 행복한 삶에 역점을 두면서 사회적 공공성을 지향하게 된다. ‘자행(自行)’은 법의 공덕을 얻기 위한 ‘자리행’을 말하며, ‘화타(化他)’는 타자에게 공덕을 받게 하고자 불법의 신앙을 가르치는 ‘이타행’을 말한다. 듣고 대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공성을 회복시켜 불계생명을 융현하여 생명치유에 접근한다.

‘자리(自利)’는 스스로 정진하여 수도공덕을 쌓고 그로부터 생기는 복락과 지혜의 결실로 자신이 이롭다면, ‘이타(利他)’는 타인을 위하여 실천하는 것으로 중생구제를 위해 닦는 공덕이다. 말법시대엔 자리이타가 조화를 이루는 ‘생명치유’에 관심을 갖는다. 자행화

37) 이케다 다이사쿠, 『法華經의 지혜 5』(서울: 화광신문사, 2005), p.279. 『어서』, p.1458.

38) 니치렌, 『니치렌 대성인 **어서**전집 상·하』(서울: 화광신문사, 1989), p.384.

39) 이케다 다이사쿠, 『법화경의 지혜 4』(서울: 화광신문사, 2001), p.268.

타는 자타가 공공으로 심신의 병을 치유하는 공공양식이다. 마음이 병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십계호구 법리로 치유하고, 그 치유를 통해 공공실천으로 나아간다. 병 상태를 감안하여 상대와 함께 생명치유로 나아간다. 중국 담란은 「왕생론주 往生論注」에서 ‘이타’와 ‘타리’를 구별하였다. ‘이타(利他)’가 부처경지에서 이루어진다면, ‘타리(他利)’는 아미타국 왕생의 대승보살의 몫이다.

정토왕생은 자리이타의 ‘대승보살도’에 해당한다.⁴⁰⁾ 니치렌은 「제법실상초」에서 ‘일염부제(一閻浮提) 제일의 어본존을 믿어실지어다.’⁴¹⁾라고 했다. 남묘호렌계교는 어본존의 근본으로 대성인의 생명에 구원원초 자수용신이라는 본지(本地)를 나타낸다.⁴²⁾ 본지는 본래경지로서 사람과 법이 일체 경지를 이룸이다. 행과 학을 공공으로 실천하여 자리이타를 구현함이다.

SGI 2대 회장, 도다(戸田)선생은 ‘이(理)’는 ‘믿음(信)’을 낳고, ‘신’은 ‘이’를 구(求)하고, 구해진 ‘이’는 ‘믿음’을 높이고, 높여진 ‘믿음’은 ‘이’를 깊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이(理)’와 ‘신(信)’의 상관연동의 ‘행학(行學)’으로 자행화타를 구현함으로써 인간존엄에 이르는 방식을 공공실천으로 이행한다. 실제적으로 인간존엄은 현대의 ‘보편적 가치(universal criterion)’로 자리매김한다.⁴³⁾ ‘행학’의 ‘이도(二道)’ 가운데 ‘행’이 갖는 의의는 신심을 자행화타의 공공실천으로 전환시킴으로 마차의 두 바퀴처럼 상관연동으로 작용한다.

말법의 불도수행이 자행 위주가 되면, 널리 타자를 위해 설함에 따른 공공행복을 창출할 수가 없다.⁴⁴⁾ 말법의 자행화타 시대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실천하는 도리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는 취지이다. 이 취지는 승려중심주의를 따르는 종교교육 방식을 타파하여 재가신도 중심의 교육방식을 반영한 것이다. 상좌부 중심에서 대중부 중심으로 전개된 대승불교 교육방식을 계승하였다. 역사적으로 중생구제를 위한 붓다의 교화는 폭이 넓고 원만하였다. “법은 스스로 흥통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을 흥통하는 고로 ‘인법(人法)’이 함께 존귀(尊貴)하니라.”⁴⁵⁾ 한다. 붓다는 갠지스 강 하류부터 서쪽 델리까지, 남쪽 가야에서 북쪽 히말라야 산기슭에 이르는 먼 길을 감연(敢然)히 걸어 다녔다.

‘이근공덕’으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교화의 법음을 전파하였다. 붓다는 종교교육의 마지막 귀의처는 자기 자신이기애 학습의 주체가 자기 자신임을 일깨워주었다. 궁극의 행복은 붓다의 사자후를 듣고 생명본질을 분별하며 불성으로 파악할 수 있음이다.⁴⁶⁾ 구제할 중생이 있는 한, 붓다는 같은 장소라도 몇 번이고 움직였다. 붓다는 자력에 의한 종교교

40) 『大正藏』 26권 231中 참조.

41) 니치렌, 앞의 책, p.1361.

42) 이케다 다이사쿠, 『어서의 세계 2』(서울: 화광신문사, 2005), p.163.

43) Hans Küng, *Global Responsibility*, SCM Press (NY: The Continuum, 1996), p.90.

44) 니치렌, 앞의 책, p.1022.

45) 니치렌, 앞의 책, p.856.

46) 이케다 다이사쿠, 『법화경의 지혜 5』(서울: 화광신문사, 2005), p.95.

육을 강조한 자행화타의 선구자다. 니치렌도 다쓰노구치 범난에서 “이처럼 기쁜 일이니 웃으시오.”⁴⁷⁾라고 의연하게 대처하였다. 유죄의 땅, 사도(佐渡)의 극한(極限)에서 “희열(喜悅)은 한량(限量)없도다.”⁴⁸⁾ 외치며, 퇴전하지 말고 ‘절복(折伏)하는 일에 살자’는 격려를 멈추지 않고 이어서 갔다.

‘묘’는 ‘스승’, ‘호’는 ‘제자’이고, ‘렌게(蓮花)’는 인과구시(因果俱時)이다. ‘인’은 구계의 제자이며, ‘과’는 불계의 스승이다. ‘묘호’도 ‘렌게’도 스승과 제자가 둘이 아닌 ‘사제불이’이다.⁴⁹⁾ ‘사제불이’는 인과구시의 연꽃을 피워 자리화타의 공공윤리 실천으로 나아간다. 자리화타의 행동에서 ‘법화경의行者’를 발견하며, 이는 니치렌 대성인의 의미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효에노사에몬전(兵衛左衛門殿)’은 법화경의 행자와 동일시하였다.⁵⁰⁾ 스승은 “자애로운 어머니, 보호해주는 양육자, 제자를 피안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인도자”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⁵¹⁾

종교교육에 있어 붓다는 권위주의 교화방식을 배격하였다. ‘선지식(善知識)’이라는 표현에 나타나듯이, 사제관계는 ‘좋은 친구’ 관계이다. 사제동행의 교육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연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게 교육을 말한다. 권위만을 내세우는 선생으로부터 영혼을 벗어나게 하여 제자를 보호하면서 진리로 나아가 공공윤리 덕목 준수의 사제관계로 정립한다. 이를 한국 SGI는 사제불이 관점에서 자행화타의 공공윤리 실천으로 준수한다. 이를 통해 생명에 대한 평등한 사랑을 깨닫고 자비정신을 본바탕으로 삼는 평화구현의 교육으로 실천한다.

또한 여인이 소승불교에서는 ‘오장삼종(五障三從)’이라 하여 세간출세에 타박당하고 일대의 성교(聖敎) 가르침에서 소외되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용녀가 성불하였다.⁵²⁾ ‘자행화타’의 ‘자행’은 근행이며, ‘화타’는 홍교이기에 ‘자행화타’는 창제를 통해 공공윤리 실천으로 나아간다. 근행의 정행과 함께, 『법화경』의 「방편품」과 「여래수량품」을 독송하면 조행(助行)이 되어, 한국 SGI에서는 이를 함께 교화방편으로 채택하였다. 「방편품」을 독송함은 적불(迹佛)의 깨달음을 나타낸 법리이며 동시에 구원원초의 자수용신여래의 깨달은 법을 나타냄이다.⁵³⁾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터득하여 깨닫는 도리이다. 자신이 마지막 위의를 치가 되어 ‘어본존(御本尊)’과 정서적으로 감응함으로. 법의 울림에 자아의 환희성으로 충만하게 된다.⁵⁴⁾

제 2대, 도다 선생은 ‘종교는 큰 고뇌에 빠진 민중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

47) 니치렌, 앞의 책, p.914.

48) 니치렌, 앞의 책, p.1360.

49) 이케다 다이사쿠, 『어서의 세계 3』(서울: 화광신문사, 2005), p.184.

50) 니치렌, 앞의 책, p.1231.

51) 『大方廣佛華嚴』(T. 9), p.769a.

52) 니치렌, 앞의 책, p.1235.

53) 창가학회 교학부편, 앞의 책, pp.302-303.

54) 이케다 다이사쿠, 『어서의 세계 2』(서울: 화광신문사, 2005), p.190. 아쉬톤의 환희성이 나타난다.

장하였다.⁵⁵⁾ 아울러 섭수(攝受)·절복(折伏)은 자비정신의 민중불교 요체로서 생명치유를 향한 실천으로 일이관지(一以貫之) 하여 가르침을 널리 폈다. 홍교할 때, 문법하종과 발심하종의 법리를 사용한다. 이는 일생성불 인간론과 연동되어 광선유포로 이어진다. 보은은 ‘일체중생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향으로 공공실천을 이행하였다. 『법화경』에 따르면, 일체중생에 대한 보은은 만인성불을 염원하는 자비서원과 일치한다.⁵⁶⁾ 생명불성의 씨앗을 심고 발심으로 이어주고 살림으로 생명치유를 공공차원으로 전개하고 생명을 성불로 빚기 위해서 일생성불에 따른 홍교를 공공윤리 실천으로 전개함으로 공공행복을 매개한다. 이는 곧 자비서원의 보살서약을 공공윤리로 실천함으로 이체동심 법리에 근거한 광선유포의 공공실천으로 나아감을 말한다.

IV. 일생성불의 인간론과 광선유포의 공공실천

1. 일생성불(一生成佛)의 인간론

한국 SGI는 일생성불의 인간론을 표방한다. 인간이 불성을 갖고 있음이고, 묘법으로 하종하여 부처의 법신·반야·해탈의 삼덕을 일생동안 갖추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의미이다. 묘법의 힘은 ‘묘호렌계교’ 오자 신행에 있고, 자신의 몸을 묘법 당체로 믿기에 중생유익으로 인도한다. ‘중생무변서원도’의 서원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민중의 공공행복을 위해 발원하는 자비서원이 법화경에서 내세우는 보은의 관점이다. 탐·진·치의 삼독이 강성한 말법민중을 구제하고자 궁극적 영약이 요청되었다.

그 근간은 자신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불석신명(不惜身命)’의 신심으로⁵⁷⁾ 서원을 성취하는 길이다. 일생성불의 신념은 자타의 마성(魔性)을 깨고 하루하루 공부를 하며 변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목숨을 건 진지한 승부사의 태도로 나타난다. 절복정신을 잃고 허세만 부리면 신심이 사라진다. 스승은 제자가 선악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희망을 선사한다. 한국 SGI는 불법진수를 사제관계에서 모색한다. 묘법유포의 선두에 서서 군부권력의 탄압을 비롯하여 온갖 대난과 싸운 초대회장 마키구치의 제자, 도다 선생은 마키구치 선생과 함께 감옥소까지 갔다. 그 후 도다 선생은 살아서 감옥소를 나와 홀로 창가학회 재건에 앞장섰다. 그 이후 이케다 선생은 도다 선생을 스승으로 섬겨 가르침을 이어갔다.

제 2대 회장, 도다 선생을 지키는 것이 학회를 지키는 것으로 보고 이케다 선생은 생명살림의 길에 매진하면서, 정신을 단련하는 효과적 방법으로 종교대화를 선택하였다.⁵⁸⁾

55) 이케다 다이사쿠, 위의 책, p.291.

56) 이케다 다이사쿠, 『어서의 세계 3』(서울: 화광신문사, 2005), p.257.

57) 위의 책, p.291.

한국 SGI는 생명살림 정신으로 민중에 다가서고 승보를 대중으로 전환함으로 민중불교로 전환한다. ‘사제정신’을 통해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는 창가학회는 공공윤리 실천에서 존귀한 동지를 바보로 취급하거나 배후에 숨어 사리사욕을 탐하는 인간을 관용하지 않는다. 악과 싸우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생로병사’의 고뇌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공공윤리 실천에 앞장서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공공윤리 실천자, 지용보살을 결집한다.

“당신들에게 만약 일이 있으면 어두운 밤에 달이 떠오르듯, 묘호렌계교 오자가 달이 되어 나타나 당신들의 앞길을 비추겠지요. 그리고 그 달 속에는 석가불 시방의 제불은 물론이고 앞서 떠난 자제도 나타나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세요.”⁵⁹⁾

묘법의 ‘활사개공’으로 생명을 격려하고 인도하며, 공공윤리의 실천체도를 통해 생명약진에 나아가도록 돕는다. 묘법을 수행하면, ‘상락아정(常樂我淨)’의 빛으로 연결되고 희망과 용기를 담보 받는다고 바라보기에, 니치렌은 이렇게 말했다. "니치렌의 제자들은 겁쟁이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⁶⁰⁾ 한다. 일생성불 자세는 용기와 자비 그리고 정의 덕성을 포함한다.⁶¹⁾ 『법화경』 「제바달다품」에서는 악인성불과 용녀성불을 밝히면서 일생성불과 일체성불로 법화경의 위력을 나타낸다. 제바달다는 석존을 살해하려고 하고 정법교단을 분열시키고, 연화색 비구니를 때려서 살해하였다. 이러한 악인을 과거세 석존의 선지식으로 묘사되었다. 생명실상은 ‘선악불이(善惡不二)’로 생명으로서 선과 악을 동시에 갖추고 있음이다. 그래서 제바달다는 묘법연화경의 별명이며 과거세 아사선인으로 인식되었다.

붓다는 묘법을 스승으로 삼아 성불을 이루었다고 전해진다. 세상의 악과 싸움으로 생명을 단련하고 치유하여 성불하는 교화방편이 일생성불론으로서, 인간고통과 상관연동을 이루는 ‘사성제(四聖諦, Fourth Noble Truth)’에 의한 덕성함양의 윤리교육이다.⁶²⁾ 십계호구의 법리는 부처 속에도 악이 있을 수 있고 악인 속에 불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제바달다의 성불이 불가능하면 법화경은 완결되지 아니한다. 성불시키는 본원력이 법화경의 법체, 『묘법연화경』이다. 또한 용녀가 보주를 부처에게 바친 것은 용녀 생명이 부처와 일체임을 드러낸 것이다. 용녀는 축신(畜身)이나 축생계도 불계를 갖추고 있기에 용녀성불은 남성성불로 이어져 일생성불의 인간론을 형성한다. 종교를 떠나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

58) 이케다 다이사쿠, 『신민중 시대로 평화의 대도』(서울: 화광신문사, 2006), p.27.

59) 『어서』, p.1397.

60) 위의 책, p.1282.

61) Lorraine ed., *The Routledge Companion to Virtue Ethics* (NY: Routledge, 2015), p.97.

62) 위의 책, p.416. ‘법화경의 행자는 여설수행을 하면 반드시 일생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불하느니라. 비유하면 봄여름에 농사를 짓는 데, 조만은 있을지라도 1년 중에는 반드시 이를 거두어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불’은 자신의 생명의 내면에 있는 부처의 생명을 여는 것이다. 한국 SGI의 성불은 선을 쌓는 경애를 거듭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끊임없이 유포하는 사람이다.

는 데, 이는 생명에 충실하며 자신을 봉헌하는 정신력을 의미한다. 불성을 ‘붓다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자비심에 기반을 둔 영성교육은 생명에 내재되고 번뇌에 가리지 않은 본성정정을 밝히는 종교교육에서 이루어진다.

부처의 지건을 열면 법화경을 굴리고 중생의 지건을 열면 법화경에 굴리게 된다.⁶³⁾

원래 붓다의 교화설법에서 진실과 방편은 다른 차원에 있지만 상호유기적인 순환관계를 이룬다. 종교교육에 있어서 세간 언어와 관습을 떠나 진리를 설할 수 없고 방편은 진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용녀는 소승불교에서 성불할 수 없는 오장(五障: 여성, 범천, 제석, 마왕, 전륜성왕)에 속했지만, 대승경전, 『법화경』에서는 생명치유의 여성성불의 주인이 된다. 묘법을 깨닫고 생명을 치유하는 입장에서, 생로병사는 생명리듬이며, ‘상락아정’의 사덕이다.⁶⁴⁾ 말세중생에게 일생성불 가능성이 열려 있음은 일체중생을 살리고자 하는 자비서원이다.

환경에 의존하는 상대적 행복은 죽음으로 단절되지만, 부처경에는 ‘자신법성의 대지를 생사 생사로 유전한다.’⁶⁵⁾ 일생성불의 경에는 생명전체가 본래 갖춰진 능력을 발휘하여 생사를 초월하는 강인한 경애를 표현한 인간영성의 발로이다. 일찍이 붓다는 교화방식이 아니라 종교교육의 방법의 중요성을 실천으로 제시하였다. 붓다의 종교교육에서 진리는 교육방법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사람은 영성을 통해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좋은 삶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희망과 연결한다.⁶⁶⁾ 한국 SGI는 오악중생의 일생성불의 길을 예비하고자 광선유포의 공공실천으로 연결된다. 일생성불은 신앙으로 본 인간론이다.

신앙은 희망에 대한 확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믿게 하는 가운데 경건함을 통하여 창조적인 가치의 종교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창조적 가치로서 삶에 임하는 것이 진리에 민감하게 깨어나도록 하는 광선유포이다. 신앙을 이웃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공평사회를 건설하려는 확신의 실천운동으로 이어진다.

2. 광선유포(廣宣流布)의 공공실천

인생 일대사의 비전(秘傳)은 한사람에서 시작하여 한사람에게 전해지는 혈맥상승의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SGI 전법교화의 형식과 내용은 당사자 이외에 알려지지 않는 아니하였

63) ‘開佛知見轉法華 開衆生知見 被法華轉’ 清華 譯註, 『六祖壇經』(서울: 광륜출판사, 2003), p.226.

64) 부처의 생명에 갖춰진 덕목으로 사덕바라밀이다. ‘상(常)’ 바라밀은 완전한 영원성이며, ‘낙(樂)’ 바라밀은 완전한 안락이며, ‘아(我)’ 바라밀은 완전한 주체성이며, ‘정(淨)’ 바라밀은 완전한 청정함이다.

65) 위의 책, p.724.

66) Russell, D. C. 2012. *Happiness for Human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20.

다. 제자의 서원은 광선유포를 향한 신심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⁶⁷⁾ 따라서 혈맥은 비밀스러운 의식이 아니라 신심의 방편에 속한다. 강성한 신심만이, 니치렌의 경애를 자신의 생명에 흐르게 하는 신심혈맥은 사자전승(師資傳承)의 방법이다.⁶⁸⁾ 니치렌은 「생사일대사혈맥초」에서, 신심혈맥으로, 자발적 신심, 지속적 신심, 이체동심의 신심을 강조하였다.

먼저 자발적 신심은 “구원실성의 석존과 개성불도의 법화경과 우리들 중생의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는 바를 생사일대사의 혈맥이다.”⁶⁹⁾ 이는 곧 자신이 스스로 묘법당체임을 아는 신심이다. 또한 지속신심은 “이 삼세의 생사에서 법화경과 떨어지지 않는 것을 법화의 혈맥상승”을 말한다. 이는 곧 인과가 생사를 초월하기에 삼세각별(三世各別)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믿는다. 그리고 이체동심의 신심은 “자타피차(自他彼此)라는 마음 없이 수어(水魚)라고 생각을 해서 이체동심이 되어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는 바를 생사일대사의 혈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이체동심의 법리로 단결함이다.

과거 ‘일련정종(日蓮正宗)’에서 “열심히 신심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법주, 닛켄(日顯)에게만 혈맥을 상속되어, 법주(法主)를 따르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다고 전해졌다. 신심보다 법주우선이며, 법주의 말에 도의하지 아니한다고 창가학회를 일련정종에서 제명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련정종’에서 창가학회에 1991년 11월 28일자로 ‘파문권고서’를 보냈다. 창가학회에서는 ‘일련정종’으로부터 영혼의 탈식민지화로 수용하면서 오히려 ‘파문’을 수용하고, 한 달이 지난 1991년 12월 27일, 창가학회는 법주에게 ‘퇴좌요구서’를 보냈다. 이는 서양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한 상황과 흡사하다.

‘퇴좌요구서’에 서명한 사람은 1천 6백 25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일련정종’의 법주가 1천 6백 25만 지용으로부터 오히려 ‘파문’을 선고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창가학회가 ‘일련정종’을 ‘닛켄종(日顯宗)’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아베 닛켄을 법주로 하는 사이비 종교집단임을 경계하는 의미이다. 여기서 창가학회는 닛켄 법주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사제불이의 이념은 ‘일련정종’으로부터 독립함을 의미하며 니치렌의 신심혈맥을 계승하여 성직자 없이 192개국에서 광선유포를 전개함을 의미한다. 니치렌은 “때의 관수라 할지라도 불법에 상위하여 기의를 세우면 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67) 이케다 다이사쿠, 『어서의 세계 3』(서울: 화광신문사, 2005), p.265.

68) 『어서』, p.1337. ‘사자전승’은 스승의 깨침을 전수받고 그 법맥을 전승하는 것이다. 『선가귀감』에서 자신이 비록 내심자증(內心自證)의 세계에 도달하여 자성을 돈오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 정안(正眼)을 결택(決擇)하고 점검받아야 한다고 했다. 스승 없이 깨쳤다고 한 무리들을 중국 선종에서는 외도라고 말하기에, 견성은 선지식에 의해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되었다. 그런데 니치렌은 중국의 선종과 달리 일본국의 일체중생에게 법화경을 믿게 하여 성불하는 신심으로 혈맥을 잇게 하였다. 성불혈맥이 특정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만인에게 개방되었다고 할 것이다.

69) 위의 책, pp.1337-8.

것”⁷⁰⁾라고 했다. ‘일련정종’의 범주라고 하더라도 기의(旗意)를 세우면 올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닛켄이 이끄는 ‘일련정종’은 이제 닛켄종이 되었기에, 광선유포에 따른 공공윤리 실천에서 벗어나 있다고 평가한다.⁷¹⁾ SGI가 사제불이 정신을 강조한 것은 ‘일련정종’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의 방향이다.⁷²⁾

V. 맺음말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창가학회(K-SGI)의 교학에 나타난 상관연동 사례를 중심으로 ‘우주신인론’ 전망과 상관된 공공윤리를 살펴보았다. 먼저 우주론 전망에서는 일념삼천 우주론과 입정안국의 공공실천에서 활사개공의 공공윤리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체동심으로 생명개체를 살려 우주생명과 활연관통함으로 개체생명을 우주생명으로 인도하는 우주론의 전망을 볼 수 있었다. 입정안국의 ‘이체동심’은 공공실천으로 구체화되었다.

창가학회 초대회장, 마키구치 쓰네사부로의 『인생지리학』에는 지방과 향토, 즉 향토가 국제발전의 고두보라는 사실과 이익우선주의에 따른 지구환경의 악화를 우려하였다.⁷³⁾ 개체생명뿐만 아니라 향토발전이 세계시민성의 토대가 된다는 생각에서 ‘생각은 국제적으로, 행동은 향토적으로’라는 가치를 표방하였다. 지구적 시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공공윤리 실천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향토적 관점에서 지역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음이다. 종교교육 차원에서 집단교육 속의 개성화 교육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또한 삼대비법의 존재론에서는 니치렌이 말법중생 구제를 위한 비요(秘要)의 전망을 본문의 본존(本尊)·제목(題目)·계단(戒壇)으로 나타낸다. 『법화경』을 제불출세의 일대사로 간주하고 만인성불 인연으로 삼아서 ‘남묘호렌게교(南無妙法蓮華經)’를 봉창함으로 생명화해를 위한 ‘공사공매(公私共媒)’의 공공윤리 가치를 구현한다. 한국 SGI에서 ‘자신을 위한 ‘근행’으로 불성을 일깨우고 타자를 위한 ‘홍교’로 타자와 생명화해를 꾀한다. 이처럼 ‘본문제목’의 창제는 ‘소통문화’와 ‘생명치유’를 수반함으로 삼매현전과 함께 사회적 공공성을 나타냈다. 진리는 종교교리보다 인간정신의 자유와 해방을 지향한다. SGI가 일본에서

70) 위의 책, p.1618.

71) 위의 책, p.494. ‘판사를 제쳐 놓고 방법(謗法)을 책할지여다. 이는 절복(折伏)의 수행이니라.’ 이에 근거하여 닛켄종은 대성인직결(大聖人直結)을 부정하고, 「법주절대론(法主絶對論)」의 사의(邪義)를 내세우고, 혈맥, 삼보, 본존 등 대성인(大聖人)의 정통적 교의(教義)를 바꾸어, 불법(佛法)을 파괴(하기)에 천마(天魔)·닛켄(日顯)을 교조(敎祖)로 하는 닛켄종으로 대방법(大謗法)의 사종(邪宗)으로 전락하였다고 풀이한다.

72) 박승길, 『현대한국사회와 SGI』(서울: 도서출판 태일, 2008), p.269.

73) 이케다 다이사쿠, 『우주와 지구와 인간』(서울: 화광신문사, 2010), p.217.

공명당을 창당하여 민중행복이라는 공공윤리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한국 SGI를 포함한 일본 이외의 SGI는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다. 한국 SGI도 일본과 달리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아울러 일생성불의 인간론은 광선유포와 상관하여 ‘공공행복’이라는 목적윤리 성취를 위해 생명을 격려하는 광선유포의 공공실천으로 매진하였다. 일생성불의 인간론에서는 생명살림의 지표로서 공공실천을 선양함으로 현대사회에서 공공행복 구현의 세계시민성 함양을 모색하였다. 반면에 전통종교의 조직화된 공동체는 기복적으로 흘러 집단이익을 표출하기가 쉽다.

한국 SGI는 생명존중·생명화해·생명살림의 지표에 따라 공공윤리를 실천하고, 본문의 본존(本尊)·제목(題目)·계단(戒壇)의 삼대비법으로 일생성불 혈맥을 개방하고 공공으로 실천하는 종교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공공행복을 구현하고자 만인성불 혈맥을 전개하기 위한 광선유포의 공공실천을 다양하게 기획하였다. 무엇보다도 21세기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핵개발 저지운동에 앞장서며 인류평화를 모색하는 공공윤리 실천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런데 한국 SGI가 실천불교로서 보다 진일보하려면 각국의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살리는 실천목록을 마련하여 공공실천 양상을 꾸준히 점검하고 성찰할 필요가 드러났다. 아울러 사회적 공공성에 부합되는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야 비로소 현대의 시민사회와 호흡하는 대승불교의 영성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표. 『포스트모던시대의 불교와 종교교육』, 서울: 정우서적, 2010.
- 김용환. 「공공철학 체계와 실천윤리」 『근대한국과 일본의 공공성 1』, 성남: 한국학중앙 연구원 출판부, 2015.
- 김태창. 『상생과 화해의 공공철학』, 서울: 동방의 빛, 2010.
- 니치렌. 『니치렌 대성인 어서전집 상·하』, 서울: 화광신문사, 2007.
- 달라이 라마, 류시화 역.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서울: 김영사, 2001.
- 박승길. 『현대한국사회와 SGI』, 서울: 도서출판 태일, 2008.
- _____. 『일본 신종교의 이해』,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윤기엽. 「근대일본 법화계 신종교의 역사적 성립과 발전」, 『신종교연구』 22, 2010.
- 이와노 넷교, 박현철·이사호 역.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 서울: 가야원, 1996.
- 이원범·남춘모. 『한국 속 일본계 종교의 현황』, 서울: 대왕사, 2008.
- 이케다 다이사쿠. 『법화경의 지혜 2』, 서울: 화광신문사, 2000.
- _____. 『어서의 세계 3』, 서울: 화광신문사, 2005.
- _____. 『생사일대사 혈맥초강의』, 서울: 화광신문사, 2009.
- 창가학회교학부편. 『교학의 기초』, 서울: 화광신문사, 2011.
- 최상호 편. 『일련정종 20년사』, 서울: 한동출판사, 1983.
-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김은희 옮김. 『행복』, 서울: 지혜의 나무, 2011.
- 한국SGI. 『한국SGI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서울: 한국 SGI, 2012·2013.
- Christopher W., Gowans, *Buddhist Moral Philosophy*, NY: Routledge, 2015.
- David Carr and John Haldane(ed), *Spirituality, Philosophy and Education*, NY: Routledge, 2013.
- Elizabeth Ashton, *Religious Education in the early years*, NY: Routledge, 2000.
- Panikkar, Raimond, *The Experience of God*, Minneapolis: Augsburg, 2006.
- _____, *The Cosmotheandric Experience: Emerging Religious Consciousness*, New York: Orbis Books, 1993.
- Russell, D. C., *Happiness for Huma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Oddrun M. H., Braten, *Religion in Education*, NY: Routledge, 2013.
- Ronal Beiner, *Civil Relig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원고접수일 : 2017년 1월 5일 심사일: 2017년 2월 3일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9일

연구자소개: 김용환

① 전공: 종교윤리(서울대 철학박사) / 소속: 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② 관심영역: 종교윤리, 공공윤리, 세계윤리

③ 주요논저: 『세계윤리교육』, 『종교윤리와 정산사상』외 다수

④ E-mail: sunyanan@cbu.ac.kr, sunyanan55@naver.com

Abstract

An Educational Study on the Public-common Ethics of Korean SGI

Kim Yong Hwan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public-common ethics of Korean SGI. The Korean SGI is a kind of Buddhism which was transmitted from Japan in 1960's. Korean SGI is originally a buddhist religion but it has been debated as not Korean religion, pseudo buddhism and political organization. In Korean society, the Korean SGI has persisted to grow while the labeled 'the other of Japanese religion.' In the period of global citizenship of 21st century, the Korean SGI has created the Life-respect Buddhism, People-reconciliation Buddhism and Modern Buddhism. The mentality of 'the other of Japanese religion' has changed to the pursuit of publicity among different belief systems.

Firstly, The Korean SGI is a new religious organization. The correlative linkage between three thousand in one idea and the public practice of comfortable people by the building of the right have contributed to activating the private to opening the public through life respect. It is an essential issue of public-common ethics. Secondly, The correlative linkage between three secrets of buddhist law including chanting of Lotus Sutra's title and the public practice of benefit to others has contributed to mediation the private with the public through life reconciliation. Thirdly, The correlative linkage between fulfilling buddha's nature in one lifetime and wide spreading the dharma benefit in the world has contributed to fulfilling the public-common happiness through life saving. The conviviality is considered to be the attitude of sharing goods and happiness with other people. It has been considered to be the ultimate end of public-common ethics.

This article on the basis of Public-common ethics of Korean SGI, would examine the social publicity and the evaluation of a certain new religion in contemporary society. We can say that it is the discursive morphology of Public-common ethical education.

Key words: *Korean SGI, activating the private to opening the public, mediation the private with the public, fulfilling the public-common ethics*